

# 중국, PVC 건축자재 “싸구려 취급”

LGRI, 중국의 외관중시 특성으로 ... 고유 주거문화 이해 필수적

중국에서 외관을 중시하는 특성에 따라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친환경적이고 항균, 방진 기능이 뛰어난 PVC 건축자재가 중국에서는 저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건축자재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국 고유의 주거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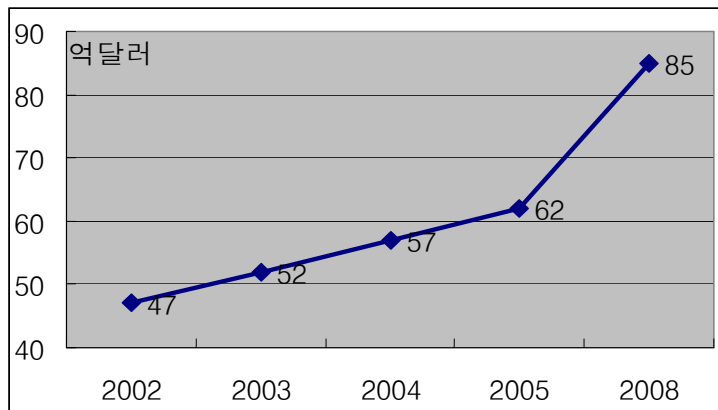
외관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은 건축자재를 선택할 때도 보기에 멋있거나 고급스러운 나무 바닥재의 두꺼운 느낌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축자재 생산기업의 주력 제품인 항균, 방진, 오염물질저감 등 친환경적이고 기능이 더 좋은 PVC 바닥제품은 눈으로 보기에 두께가 얇고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아 중국인들이 저급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창호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PVC 창호도 방음성과 단열성이 알루미늄 창호보다 월등히 뛰어나나 색상의 자유도와 두께 등 외관이 알루미늄 창호보다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기능성 있는 PVC 창호보다 알루미늄 창호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국내시장과는 소비성향이 다른 중국에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창호재 시장전망



자료) LGRI

2004년 중국 건설부 <주택산업화촉진중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한해 약 700만가구가 신규로 건축되고 있다. 또 주택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도 동시에 진행돼 건축자재 시장도 연평균 15-20% 성장하고 있고 2002년 약 450억달러에 이르러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 건축자재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국내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특성과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중국 문화에 맞는 R&D와 디자인 현지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화학저널 2004/04/19>